



**농협 남원시지부,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봉사**

농협 남원시지부(지부장 오영석)와 지리산 농협(조합장 정대환)의 임직원들로 구성된 NH농촌현장봉사단은 지난 22일 인월면의 취약계층 2곳에서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에서는 농업인행복센터 상담을 통해 접수된 돌봄대상자의 지원 요청에 따라 봉사단의 실사를 거쳐 도배, 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 현장지원을 진행했다.

지원받은 어르신은 "봉협의 도움을 받아 새롭게 도배, 장판을 교체하게 되어 너무 감사한 마음뿐"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정대환 조합장은 "취약계층을 돕는 봉사활동을 지역 주민들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부안 산림조합, 산림형 비즈니스 모델 견학 교육**

부안군산림조합(조합장 오세준)은 23일 부안군 동진면 증산길 뱃남포도포도대 치유정원에서 임업인 교육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관내 산주·임업인의 소득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교육은 산림형 농촌융복합산업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교육과 실제 공기정과 식물 가꾸기 체험 교육으로 임업 6차산업에 대한 기술과 정보를 습득했다.

오세준 조합장은 "산림(山林)의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산주·임업인을 위해 산림조합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더 많은 산주와 임업인의 소득증대 및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뜻을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안천초중고, 김장 체험 · 나눔행사**

안천초중고등학교(교장 박원순)는 지난 22일 김치의 날을 맞아 학생자치기구(다모임)와 함께 김장 담그기 체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담근 김치는 인천면 마을회관에 전달됐다.

이에 따르면 안천유초중고 학생들은 잔안고원의 싱싱한 고랭지 배추로 담근 김치와 잔안호박지 수육으로 지역사회와의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박원순 교장은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를 인천면 어르신들께 전달해 드리는 효행을 실천하는 학생들의 아름다운 모습에 보람을 느낀다"면서 "우리 아이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추억을 기억하며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안천초중고등학교는 인권보호사와 감사위원장을 지낸 후 산민 헌승헌 변호사의 모교이기도 하다.

/장은성 기자

**김제 백구면 주민자치위 자매결연도시 교류행사**

김제시 백구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정금량)는 23일 자매결연도시인 제주도 서귀포시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합동워크숍을 개최하여 상호 우호 관계를 증진했다.

이번 행사는 상호 협력관계 증진과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7월 서귀포시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백구면을 먼저 방문하고, 11월에 백구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앙동을 방문하기로 한 약속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합동워크숍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사례를 공유하여 우수사례 벤치마킹 실시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방안과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방안 등에 논의하였다.

백구면 주민자치위원회 정금량 위원장은 "서귀포시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와 교류를 통해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와 위원 역량강화뿐만 아니라 김제시와 서귀포시 농특산물인 쌀과 감귤의 교류, 고향사랑 기부금 고쳐기부 등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나보다 어려운 이웃 위해 써주세요”**

정읍시 연지동주민센터에 4000만원 기탁... 기초수급자로 평생 모은 재산

“좋은 마음으로 조용히 선행을 베풀고 싶습니다. 저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주세요.”

지난 22일 오전 10시께 정읍시 연지동 주민센터. 일상적인 민원 업무를 보던 시민들 사이로 한 노인이 복지팀 직원에게 다가왔다.

노인은 가슴팍에 숨기고 있던 하얀 봉투를 꺼내 직원에게 건넸다. 봉투에는 담담한 글씨체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주세요”라고 쓰여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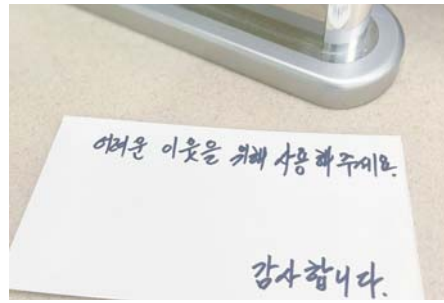
노인은 직원에게 “적은 금액이지만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를 하고 싶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떴다.

직원은 봉투 안에 든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1000만원 짜리 수표 4장이 들어있었던 것.

기부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녀석지 않은 형편에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직원들은 기부자 자택에 찾아가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기부자는 “혼자 살면서 돈을 쓸 일이 크게 없어 조금씩 모았다.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보탬이 되고 싶어 기부를 결정했다”며



“떠들썩하지 않게 조용히 기부를 하고 싶다”고 했다. 고명석 동장은 “녀석지 않은 형편에도 또 다른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는 기부자의 뜻이 깊이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성금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기탁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돕는데 쓰일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건보 남원지사로부터 하늘반창고 육아용품 기탁받아**

남원시는 지난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원지사로부터 하늘반창고 육아용품 30박스(환가액 3백만 원)를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육아용품 지원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들이 매월 일정 금액을 기부해 모은 기금으로, 저소득 영유아 보육가정을 대상으로 저출산 사회문제 극복 및 저소득 계층의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사회공헌 사업이다.

후원 물품에는 물티슈, 빨대컵, 롤메이커, 이유식 용기, 바



디로선 및 바디워시, 아이 치약(기즈차), 가재수건 그리고 영유아를 향한 응원 카드 등 1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백성현 지사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하겠다.”고 전했으며, 김은영 남원시 주민복지과장은 “건보 남원지사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기탁물품은 지역 내 저소득 영유아 보육 가정의 육아 부담 경감

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저소득 영유아 보육가정 30세대에 잘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인동철 바이오젠 대표이사, 전북대 발전기금 1천만원 기부**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동문인 대한바이오젠(주) 인동철 대표이사(85학번)가 대학 경쟁력 향상을 기원하며 1천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은 지난 22일 대학본부 총장실에서 양오봉 총장과 대학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기금 기증식을 열고 감사패를 전달했다.

인동철 대표이사의 발전기금은 대학 경쟁력 향상 기금으로 지정돼 대학 발전과 수의과대학 후배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인 대표이사는 “대학 발전에 이바지 하고 싶다는 평소 생각을 실천하고자 기부를 결심했다”며 “글로벌대학으로 도



약하는 전북대가 우수 인재 양성을 통해 세계 우수대학의 반열에 오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남원 도동 자율방범대, 소외 이웃에 정 나눔**

남원시 도동 자율방범대(대장 양노식)가 연말연시 희망나눔캠페인이 12월 1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한발 앞서 소외된 이웃에게 정을 나눴다.

수년째 취약계층을 위해 현물을 기탁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는 지난 22일 목욕티켓 100장 라면 20상자 전기주전자 12개를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으며, 최근 도동동과 업무협약을 맺고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 구축과 협력을 약속했으며, 물품은 1일 1가구 찾아가는 소풍행진 방문 가구와 저소득계층에 전달할 예정이다.

양노식 대장은 “열어붙은 이웃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작은 손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으며, 김윤자 도동동장은 자율방범대에 감사의 전하며, “방범대의 기부가 미중물이 되어 겨울 속의 봄이 충만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박종식 만성 대표, 순창 옥천장학회 장학금 기탁**

순창군은 지난 22일 (유)만성사업(대표 박종식)이 옥천장학회(이사장 최영일 순창군수)에 지역인재 육성에 써달라며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순창군은 동계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골재 생산업체로, 평소에도 지역발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동계파출소와 함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사고 예방 홍보 물품을 제작해 어르신들의 집중력제어에 부착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만성사업 박종식 대표는 “어려운 학생들이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인재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영일 순창군수 “순창군의 인재양성을 위해 장학금을 기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주대 작업치료학과, 학술제 개최**

전주대학교 작업치료학과는 지난 18일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학술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제는 ‘장애인의 삶과 작업’이라는 주제로 사회복지사 조선영 선생님의 특강이 펼쳐졌다. 이 강연에서 장애 당사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업치료와 척수수상 장애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줘 학생들의 호응이 높았다.

이어 진행된 수화 및 댄스 공연도 학술제의 분위기를 돋웠다.

특히 이날 오후에 진행된 동문의 날 행사는 작업치료학과 10주년을 기념해 열렸다.

10학년 강지원 동문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선배 작업치료사들의 경험을 나눴다. 특히 재활 전문 병원, 보조기기 센터, 보건소 정신건강재활기관, 광역치매센터 등에서 작업치료사로서 해야 할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는 선배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재학생들과 함께 공유했다.

끝으로 1회 졸업생부터 현재까지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의 기록을 추억의 순간들로 만든 ‘우리들의 그 시절: 시간여행’ 영상을 보여 지난 시간을 되새겨 보기도 했다.

작업치료학과 정윤화 학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전주대 작업치료학과 10년의 여정을 추억하고, 앞으로의 비전을 나눌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주기전대, 취업동아리 활동 보고대회 마무리**

전주기전대학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 22일 2023 취업동아리 활동 보고대회를 열고, 6개월 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보고대회에는 치위생과, 사회복지상담과, 운동재활과 등 특화 계열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으로 구성된 5개 동아리가 참여했다.

동아리들은 희망직종 기업탐방, 직무전문가 멘토링, 취업선배와의 인터뷰를 활용한 목표설정 등 각 동아리별 특성에 부합한 다양한 활동 및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이번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치위생과 팀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목표에 한 발짝 다가간 것 같아 뿌듯하고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진행한 공모전에 적극 참여하면서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준비하고 수상하면서 취업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주기전대학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조덕현 센터장은 “취업동아리는 동일 직종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 간의 소통의 장이었으며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남원 죽항동 지사협, 온정의김장 나눔**

남원시 죽항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와 주민자치위원회가 온정의 김장 김치 나눔 공동체 내 돌봄으로 배추 200포기를 3일간(21~23) 정성스럽게 준비한 사랑의 김장 김치를 독거노인 등 나눔과 돌봄이 필요한 이웃 100가구의 경로당 8개소에 전달하였다.

이번 김장 나눔은 협의체뿐만 아니라 죽항동 주민자치위원회, 행정자치, 나눔과 협력 연대의 가치로 발 벗고 나서서 민관 파트너십에 기반해 공동체 내 돌봄을 위해 공공서비스를 기획, 생산, 전달하는 풀뿌리 지역복지 사업이며 민관협력 사업으로 그 의미가 깊다.

김장 김치를 받은 한 주민은 “추운 겨울 정성 담긴 맛갈스러운 김장 김치를 받으니 따뜻한 인정이 느껴진다”며 감사함을 표했다.

협의체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이 협동과 연대, 나눔과 돌봄 등 사회적 사명과 지역복지 공동체 형성을 위해 후원하는 방식으로 함께 진행하는 만큼 후원자들의 뜻에 맞게 어울려 사는 공동체·복지마을을 죽항동을 만들어 가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자치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이웃들과 나눔과 돌봄을 넓혀가고 싶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